

동사연결의 다단계성

- 통어적구성에서 합성동사까지의 자로적 고찰 -

김 기 혁

1. 문제의 제기

연결어미 '-아(서)'로 이루어지는 문장접속의 단계에서 두 문장은 구속의 인과적 의미와 나열의 행위 전제에 의한 행위연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를 근거로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동사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된 두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구실할 수 있는가에서는 아주 다르다.

- (1) 가. 우리는 비가 자주 와(서) 경기장에 갔다.
 나. 우리는 경기장에 비가 자주 와(서) 갔다.
 다. *우리는 경기장에 비가 자주 와갔다.

- (2) 가. 그는 자주 굶어(서) 죽었다.
 나. 그는 자주 굶어 죽었다.
 다. *그는 자주 굶어죽었다.
 라. 그는 굶어죽었다.

- (3) 가. 우리는 물을 자주 끓여(서), 마셨다.
 나. 우리는 물을 자주 끓여 마셨다.
 다. 우리는 물을 자주 끓여마셨다.

두 문장의 연결이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한 동사를 이루지는 않는다. '오가다(오오가다)'는 있으나, '와가다'는 없다. (2)의 경우 두 동사가 인과관계를 갖지만 두 동사의 연결이 단일한 동사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나열의 의미도 가능하기에 인과관계에 의한 동사연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위 보기에서 부사의 수식이 선행동사에는 가능하지만, 동사전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죽다'라는 동사와 '자주'라는 부사가 같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고, '죽시'가 오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에 비해 두 동사의 연결관계가 계기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3)의 경우, 두 동사가 합하여서 하나의 동사처럼 구실을 하는 경우

가 흔하다. 이는 두 동사의 연결관계가 두 동사의 결합과 동일한 의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적 결합의 동사의 연결은 문장의 접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사들의 연결을 선후행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자동사+자동사

- ㄱ. 새가 날아 남쪽으로 간다.
- ㄴ. 새가 남쪽으로 날아 간다.

타동사+타동사

- ㄱ. 우리는 사과를 꺾어 빨리 먹었다.
- ㄴ. 우리는 사과를 빨리 꺾어 먹었다.

타동사+자동사

- ㄱ. 순경이 도둑을 잡아 서에 갔다.
- ㄴ. 순경이 도둑을 서에 잡아 갔다.

자동사+타동사

- ㄱ. 아이들이 뛰어 담을 넘었다.
- ㄴ. 아이들이 담을 뛰어 넘었다.

이것으로 보면 문장의 접속에 의하여 동사의 연결이 그대로 하나의 동사와 같은 의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연결은 이론적으로 모두 가능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리고 가능한 동사와 동사의 연결이 모두 하나의 동사처럼 인식되는 구조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동사의 연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누어서 연속동사구성이라는 통어적 현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동사의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두 가지 유형의 동사연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 동사의 연결인 동사연속구성을 이들이 모두 통어적구성이지만,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는 것은 형태적 동사연속구성(줄여서 형태적구성)과, 통어적 동사연속구성(줄여서 통어적구성)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와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속되는 동사의 연결을 보면, 이들 동사의 연결이 선후행 동사의 구별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의 연결의 가능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연결의 가능 여부가 문장접속과 동일하다면 이 동사의 연결은 문장의 접속과 같은 차임을 가지고 있다는데 원칙을 찾을 수 있고, 문장의 접속과는 구별되는

동사의 연결관계를 갖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 현상이 새로운 문법범주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야하는 문제와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러한 동사의 연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사와 동사의 연결을 확인하여, 그 가운데 연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구분되고 연결이 가능한 경우는 다시 통어적구성과 형태적구성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의 검토에서 모든 동사들의 연결을 대상으로 한다면, 동사가 1000이라면, $1000 * 1000$ 인 즉 1000,000의 동사연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형중심적인 자료모형을 이루어 이 현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사전에서 나타나는 합성동사를 동사연결의 기초자료로 한다.
2. 비교적 그 수가 제한된 자동사와 자동사의 연결을 기초자료로 한다.
3.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의 연결을 기초자료로 한다.

2. 합성동사의 연결구조

2.1. 합성동사의 짜임

국어사전에서 합성동사로 다루어진 동사들은 이들이 하나의 서술어로서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두 동사 사이에 긴밀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합성동사를 이루는 동사의 연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을 이루게 되는 동사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접속의 통어적구성의 결합과 연결지을 수 없는 합성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 동사의 연결을 문장의 접속과 직접 연결지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국어의 합성동사는 대부분 어미 '-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통어적 합성동사이다. 통어적 합성어는 자립성을 가진 두 낱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낱말이 되었는지 두 낱말의 이은말인지의 구별이 어렵다. 합성어가 의미나 형태로 보아 완전히 단일한 단어로 기능할 때 완전한 합성어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완전한 합성어는 드물다, 특히 합성동사의 경우는 더욱 적으므로 여기서는 합성동사를 편의상 그 합성의 정도에 따라 형태적합성동사와 의미적 합성동사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합성동사란 통어적구성인 이은말과 구별하여 형태적 단위체인 합성동사로 기능함을 가리키는데, 의미적으로는 통어적구성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의미적합성동사는 형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통어적구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먹다'는 합성동사의 수가 많은데 통어적구성에서 의미를 그대로 가진 경우와 통어적구성에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먹다'가 일관되게 쓰여 구별된다.

- (5) 7. 형태적합성동사: 집어먹다 잘라먹다 발라먹다 누워먹다 훑쳐먹다 우려
 먹다 배어먹다 떼어먹다, 할아먹다 잡아먹다 빨아먹다..동
 L. 의미적합성동사: 숙어먹다, 눌러먹다, 부러먹다 알겨먹다 불어먹다,
 들어먹다 뺏어먹다 써먹다 놀아먹다 팔아먹다 알아먹다..동

형태적합성동사의 보기들은 모두 사전에 올라 있는 것만 보인 것이다. 이 합성동사들은 통어적구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동사들은 하나의 동작을 가진 서술어 즉 합성동사로서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문장의 연결인 경우 개별적인 두 동작이 달리 이루어짐에 비하여 합성동사는 한 행위로 인식된다. 문장의 연결에서의 선행전제와 후행결과의 표시인 계기적의미는 합성동사로 굳어지면서 사라지고 어미 '-아'는 단순한 연결의 의미만을 보인다. 합성의 정도가 강할수록 어미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들 형태적 합성동사는 통어적구성의 의미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의미적합성동사는 두 자립형식의 결합이기 때문에 통어적 합성어라 하고 있으나 통어적 구성과는 관계가 없다. 이들은 통어적구성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통어적구성에서 굳어졌다기보다는 통어적구성에서 유추하여 합성동사가 생긴것이라 볼 만하다. 합성동사는 통어적합성동사와 비통어적합성동사가 있는데, 통어적합성동사 가운데에는 관련된 통어적구성으로 변환할 수 없는 합성동사가 있다. 이러한 동사들을 통어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통어적자임을 또는 통어적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성동사라 하여야 할 것이다. 통어적구성이 불가능한 의미적합성어는 통어적구성이 가능한 형태적합성어보다 그 수가 적다. 이는 통어적구성이 조어론에 비하여 생산적인 것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다.

형태적합성동사가 통어적구성과 긴밀한 반면 의미적합성동사는 보조동사구성과 같이 역행수식이 이루어지며, 다른 합성동사에 비해 생산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다. 의미적합성동사들과 보조동사구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보조동사가 의미적 합성동사의 후행동사가 의미적 추상화가 심화되었고, 생산성이 확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게 한다. 그러나 의미적 합성동사는 보조동사구성과는 구별되는데 의미적 합성동사는 아직도 제한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짐에 비하여 보조동사구성은 생산적이며 규칙적이다.

이러한 합성동사의 두 가지 다른 특질에도 불구하고 합성동사의 연결이 문장접속의 통어적 구성과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성동사들을문장접속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와 환원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의 연결에 다른 동사의 연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면,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원리를 밝혀볼 수 있고, 문장접속의 통어적 구성에서 단일한 동사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연결관계를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국어사전에서의 합성동사의 범위

다음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합성동사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¹⁾ 이들을 자료로 하여 합성동사들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를 근거로 하여 이들 동사들의 생성과 통사, 의미 현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어가다 가지어오다 갈겨먹다 갈라서다 갈아들다 갈아입다 갈아타다 갈아당기다 갈아먹다 거쳐가다 거쳐오다 건너가다 건너긋다 건너대다 건너뛰다 건너오다 건너지르다 건너지피다 건너질다 건너지르다 건너치다 걸러뛰다 걸어앉다 풀라잡다 괴어오르다 구슬려대다 구슬려삼다 구워박다 굶어보다 굶어살피다 그어주다 굶어당기다 굶어먹다 굶어취다 까놓다 까먹다 까무느다 깨나다 깨두드리다 깨두드리다 깨물다 깨나다 깨어나다 꺼내리다 꺼당기가 꺼두르다 꺼들다 꺼오다 꺼들다 꺼안다 꺼입다 꺼잡다 끄어내리다 끄어내리다 끄어당기다 끄어당기다 끄어들다 끄어들다끄어오다 끊어말다 끊어주다 끌어내리다 끌어넣다 끌어당기다 끌어매다 끌어안다 끌어앉다 나가다 나다니다 나대다 나들다 나들아다니다 나들다 나불다 나서다 나오다 나쪼다 나아가다 낚아채다 날아가다 날아놓다 날아다니다 날아오다 내려가다 내려긋다 내려놓다 내려서다 내려앉다 내려오다 내려치다 내리어서놓다 넘어놓다 넘어가다 넘어서다 넘어오다 노려보다 놀아나다 놀아먹다 놓아두다 놓아먹다 놓아주다 놀러들다 놀러자다 놀어가다 놀어나다 놀어놓다 놀어붙다 놀어서다 놀어앉다 다가놓다 다가서다 다가왔다 다가오다 다니가다 다니오다 닦아대다 닦아주다 닫아걸다 달라붙다 달아나다 달아매다 달아보다 달아오르다 던져두다 덤비어들다 덮어두다 덮어쓰다 데려가다 와주다 둘러가다 둘러놓다 둘러막다 둘러매다 둘러버리다 둘러보다 둘러붙다 둘러앉다 둘러주다 둘러치다 둘러방치다 돌아가다 돌아놓다 돌아다니다 돌아들다 돌아보다 돌아서다 돌아왔다 돌아오다 두어두다 둘러놓다 둘러막다 둘러매다 둘러매다 둘러보다 둘러보다 둘러붙다 둘러서다 둘러싸다 둘러쌌다 둘러앉다 둘러려었다 둘러치다 뒤두다 드나들다 둘러붙다 들어가다 들어서다 들어왔다 들어오다 들어차다 따먹다 따라가다 따라오다 때가다 떠다니다 떠들다 떠들다 떠밀다 떠받다 떠보다 떠오르다 떠돌아다니다 떨어먹다 떨어치다 떼걸다 떼먹다 떼밀다 떼버리다 떼치다 떼어먹다 뚱겨주다 뚱어새기다 뚱어들다 뚱어가다 뚱어나다 뚱어내리다 뚱어넘다 뚱어오다 뚱어오르다 뚱어들어오다 뜯어고치다 뜯어먹다 뜯어보다 말라빠지다 매달다 먹어대다 메치다 메어치다 모아들다 몰라보다 몰아가다 몰아놓다 몰아대다 몰아받다 몰아오다 몰아주다 몰아치다 무뎠가다 무르와가다 물러가다 물러나다 물러서다 물러앉다 물러오다 물어넣다 물어떼다 물어뜯다 물어주다 몽쳐나다 바라보다 바라주다 바라다주다 발라먹다 배겨나다 배라먹다 벌어먹다 벗어나다 벗어나치다

1. 이는 한글학회의 소사전을 근거로 한 김계곤(1970)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완전성이 부족하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한다.

배먹다 배물다 배어먹다 배어버리다 보아주다 뷰아대다 뷰아치다 부려먹다 불어나다
 불어먹다 빌어먹다 빨아먹다 빼나다 빼놓다 빼먹다 빼물다 빼앗다 살아나다 살피보
 다 새나다 새겨들다 새기어들다 솟아나다 스쳐보다 싸들다 싸잡다 썩어빠지다 쓸어
 버리다 안아맡다 알아듣다 알아먹다 알아보다 알아주다 알아차리다 알아채다 앗아넣
 다 애굽다 야자버리다 얻어들다 얻어맞다 얻어먹다 얼러방치다 얼어붙다 엮어놓다
 엮어맡다 엮어삼다 예들다 예두르다 예워가다 예워싸다 여겨들다 여겨보다 오비어넣
 다 오비어파다 올라가다 올라서다 올라오다 움아매다 움아가다 움아오다 움켜쥐다
 움켜잡다 외어서다 우려러보다 우려먹다 우비어넣다 우비어파다 움켜잡다 움켜쥐다
 일러바치다 일러주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잘라매다 잘라먹다
 잡아가다 잡아당기다 잡아들다 잡아떼다 잡아매다 잡아먹다 잣아들다 접어들다 접어
 주다 제겨디디다 제겨잇다 제겨차다 제쳐놓다 조아팔다 졸라매다 졸아들다 졸아붙다
 썰들다 썰치다 죄어들다 죄어치다 주워들다 주워섬기다 줄어들다 쥘뜯다 쥘박다
 쥘지르다 쥐어뜯다 쥐어박다 쥐어지르다 쥐어흔들다 지나가다 지어먹다 지어붓다
 질러가다 질러먹다 질러오다 집어먹다 집어세다 징거두다 짜깁다 조아먹다 쫓아가다
 쫓아오다 찍어당기다 찍어매다 찾아가다 찾아보다 찾아오다 쳐버리다 쳐보다 쳐부
 수다 추어주다 치워버리다 캐묻다 타가다 타이르다 터놓다 툭겨주다 뿔아보다 튀어
 나다 틀어넣다 틀어막다 틀어박다 파먹다 파묻다 팔아먹다 퍼먹다 퍼붓다 퍼놓다
 풀어놓다 피어나다 할아먹다 할아세다 해대다 해먹다 해보다 해나다 헤어나다 흠쳐
 때리다 흠켜잡다 흠켜쥐다 후려치다 훑어보다 훑쳐때리다 훑쳐먹다 훑켜잡다 훑켜
 쥐다 휘어가다 휘어대다 휘어들다 휘어박다 휘어잡다 흘겨보다 흘리어주다

이들을 다시 합성동사를 이루는 후행동사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지어가다 가져가다 거쳐가다 건너가다 나가다 나아가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넘어가
 다 넘어가다 다녀가다 데려가다 돌아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따라가다 때가다 튀어
 가다 물아가다 무뎠가다 무르와가다 물러가다 예워가다 올라가다 움아가다 잡아가다
 지나가다 질러가다 쫓아가다 찾아가다 타가다 튀어가다 닫아걸다 떼걸다 뜯어고치다
 애굽다 건너긋다 내려긋다 짜깁다 튀어나가다 깨나다 깨어나다 놀아나다 놀어나다
 달아나다 물러나다 뭉쳐나다 배겨나다 벗어나다 불어나다 빼나다 살아나다 새나다
 솟아나다 일어나다 튀어나다 피어나다 헤어나다 해나다 졸라내다 꺼내리다 끄어내리
 다 끌어내리다 튀어내리다 튀어넘다 끌어넣다 물어넣다 앗아넣다 틀어넣다 까놓다
 날아놓다 내려놓다 내리어서놓다 널어놓다 놓어놓다 다가놓다 둘러놓다 둘러놓다 물
 아놓다 빼놓다 엮어놓다 비어놓다 우비어놓다 제쳐놓다 터놓다 퍼놓다 풀어놓다 들
 아놓다 나다니다 날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떠다니다 떠돌아다니다 매달다 감아당기다
 굽어당기다 꺼당기다 끄어당기다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찍어당기다 건너대다 구슬
 려대다 나대다 닦아대다 먹어대다 물아대다 뷰아대다 졸라대다 해대다 휘어대다 나
 들다 떠들다 싸들다 예들다나들아다니다 놓아두다 던져두다 덮어두다 두어두다 뒤두

다 징거두다 껌두드리다꺼두르다 꺼두르다 에두르다 움켜쥐다 눌러둔다 새겨둔다 새
 기어둔다 알아둔다 얻어둔다 여겨둔다 주워둔다 갈아둔다 꺼들다 껌들다 끄어들다
 나들다 덤비어다 돌아들다 드나들다 떠들다 뛰어들다 모아들다 잡아들다 찾아들다
 접어들다 줄어들다 껌들다 쇠어들다 줄어들다 휘어들다 제거리디다 흠쳐때리다 흠쳐
 때리다 물어때다 잡아때다 껌두드리다 건너뛰다 걸러뛰다 물어뜯다 껌뜯다 쥐어뜯다
 들라막다 들리막다 틀어막다 엮어막다 얻어맞다 끊어막다 안아막다 끌어매다 달아매
 다 들라매다 들리매다 들리매다 움아매다 잘라매다 잡아매다 찍어매다 갈겨먹다 감
 아먹다 굶어먹다 까먹다 놀아먹다 농아먹다 따먹다 뭇어먹다 때먹다 때어먹다 뜯어
 먹다 발라먹다 배라먹다 벌어먹다 배먹다 배어먹다 부러먹다 불어먹다 빨아먹다 빼
 먹다 알아먹다 얻어먹다 우려먹다 잘라먹다 잡아먹다 지어먹다 질러먹다 집어먹다
 조아먹다 파먹다 팔아먹다 퍼먹다 처먹다 할아먹다 해먹다 까무느다 캐묻다 파묻다
 캐묻다 베묻다 빼묻다 떠밀다 때밀다 일러바치다 구워박다 껌박다 쥐어박다 틀어박
 다 휘어박다떠받다 물어받다 들라버리다 때버리다 배어버리다 쓰러버리다 야자버리
 다 잃어버리다잊어버리다 쳐버리다 치워버리다 굶어보다 노려보다 달아보다 들라보
 다 돌아보다 들리 보다 들리보다 떠보다 뜯어보다 물라보다 바라보다 살펴보다 쳐보
 다 알아보다 여겨보다 우려보다 찾아보다 쳐보다 훑아보다 헤보다 훑어보다 훑거
 보다 껌부수다 쳐부수다 벗어부치다 지어붓다 퍼붓다 나뭇다 늘어뭇다 달라뭇다
 들라뭇다 들리뭇다 들리뭇다 얻어뭇다 줄아뭇 다 말라빠지다 썩어빠지다 굶어살피다
 구슬려살다 엮어살다 뜯어새기다 갈라서다 나서다 내려서다 넘어서다 늘어서다 다가
 서다 돌아서다 둘러서다 들어서다 물려서다 올라서다 외어서다 일어서다 주워섬기다
 잡어서다 할아세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둘러쌈다 덮어쓰다 껌안다 끌어안다 걸어앉다
 굶어앉다 내려앉다 다가앉다 들라앉다 돌아앉다 둘러앉다 들어앉다 물려앉다 늘어앉
 다 때앗다 둘러엮다 가져오다 가지어오다 거쳐오다 건너오다 껌오다 끄어오다 나오
 다 날아오다 내려오다 넘어 오다 다가오다 다녀오다 돌아오다 들어오다 따라오다
 뛰어들다 뛰어들어오다 물어오다 물러오다 올라오다 움아오다 질러오다 찾아오다 껌
 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때오다 뛰어들어오르다 쫓아오르다 타이르다 갈아입다 껌입다 제겨
 잇다 눌러자다 골라잡다 싸잡다 움켜잡다 움켜잡다 흠켜잡다 흠켜잡다 휘어잡다
 그어주다 끊어주다 놓아주다 덮어주다 도와주다 들라주다 두어주다 뚱겨주다 물아
 주다 물어주다 바래주다 바래다주다 보아주다 알아주다 일러주다 접어주다 뚱겨주다
 흠켜주다 흘리어주다 굶어줘다 움켜줘다 움켜줘다 건너지르다 건너지르다 껌지르다
 쥐어지르다 건너지피다 건너질다 나쪼다 건너차다 들어차다 제겨차다 뉘아채다 알아
 채다 내려치다 들라치다 들라방치다 둘러치다 뭇어치다 때치다 때치다 때어치다
 물아치다 볶아치다 얼러방치다 껌치다 쇠어치다 후려치다 갈아타다 오비어파다 우비
 어파다 조아팔다 쥐어흔들다

2.3. 합성동사의 유형

동사들의 연결은 서로의 긴밀성의 차이에 의해 두 동사가 연결되어서 완전히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긴밀하게 인식되는 동사들은 사전에서도 하나의 동사로서 즉 합성동사로서 등록되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긴밀성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결로 인하여 합성동사로서 다름을 받았던 동사들의 연결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이들 동사들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자동사들의 연결을 보려고 한다.

국어에서 자동사는 타동사에 비해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자동사와 자동사가 연결되는 모습은 국어 동사의 연결을 알아 보기 위한 표본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사들의 연결을 이와 같이 동사의 특성별로 분류하면 동사들에 따른 연결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자동사끼리의 동사연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앞의 합성동사 가운데 자동사와 자동사의 연결로 된 동사들의 보기이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가운데에는 목적격조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적어로 보기 어려운 자동사가 있다.²⁾ 여기서는 이 동사들도 자동사로 다루어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들어가다 다니가다 데려가다 들어가다 뛰어가다 옮아가다
 다 뛰어가다 나가다 지나가다 타가다 건너가다 물러가다 올라가다 질러가다 내려가다
 다 건너가다 뛰어나가다 놀아나다 놀어나다 달아나다 붙어나다 살아나다 솟아나다
 일어나다 뛰어나다 피어나다 헤어나다 빼나다 세나다 물러나다 헤나다 뛰어나다 돌
 아놓다 날아다니다 떠다니다 떠돌아다니다 나다니다 나들다 덤비어들다 돌아들다 떠
 들다잡아들다 접어들다 줄어들다 줄어들다 휘어들다 나들다 드나들다 들어볼다 얼어
 볼다 줄어볼다 나볼다 달라볼다 둘러볼다 둘러볼다 둘러볼다 내려서다 놓어서다 다
 가서다 들어서다 외어서다 일어서다 나서다 갈라서다 둘러서다 물러서다 올라서다
 주워섬기다 걸어앉다 내려앉다 다가앉다 돌아앉다 들어앉다 둘러앉다 둘러앉다 물러
 앉다 놓어앉다 거쳐오다 날아오다 내려오다 넘어오다 다가오다 들어오다 따라오다
 뛰어오다 올라오다 나오다 물러오다 올라오다 질러오다 괴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떠오
 르다 뛰어 오르다

이처럼 사전에서 다루어진 자동사와 자동사의 연결에 의한 합성동사는 몇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조동사구성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후행동사가 보조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합성동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들이다.

2.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 주관적 남용적서도 다루기도 하였다. 최현배(1983) '우리말본'이 대표적인 견해이다.

이들의 형성은 문장접속에 의한 통어적구성과는 구별되는 보조동사구성이라는 통어적 방식에 의한 것이다. 물론 합성동사나 문장접속에 의한 통어적구성과 보조동사구성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한 형태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보조동사구성만 있는 경우이다.

(6) 늘어가다, 옮겨가다, 타가다, 튀어가다

합성동사들 가운데에는 문장접속의 통어적구성과 동일한 짜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합성동사가 문장접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와 문장접속의 통어적 구성으로는 환원하기 어려워 문장접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즉 앞에서는의한 형태적 합성동사와 의미적 합성동사이다. 그리고 문장접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합성동사 가운데에는 비유적의미로 인하여 통어적구성과는 다른 합성동사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있다. 이들을 이러한 통사, 의미적 관계에 따라 나누어본다.

다음은 문장접속에 의한 통어적 구성을 연상할 수 있고 따라서 문장접속으로 환원할 수 있는 합성동사들이다.

- (7) 나아가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다녀가다 데려가다 들어가다 튀어가다 나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물러가다 올라가다 질러가다 내려가다 건너가다 튀어나가다 늘어나다 달아나다 붙어나다 살아나다 솟어나다 일어나다 튀어나다 피어나다 빼어나다 새어나다 물러나다 튀어나다 돌아놓다 날아다니다 떠다니다 떠돌아다니다 나다니다 나들다 덤비어들다 돌아들다 나들다 드나들다 얼어붙다 나붙다 내려서다 물러서다 올라서다 내려앉다 다가앉다 돌아앉다 들어앉다 둘러앉다 둘러앉다 둘러앉다 거처오다 날아오다 내려오다 넘어오다 다가오다 들어오다 따라오다 뛰어오다 옮겨오다 나오다 물러오다 올라오다 질러오다 귀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떠오르다 뛰어오르다

그러나 이 동사들 가운데 '늘어나다 달아나다 붙어나다 살아나다 솟어나다 일어나다 튀어나다 피어나다 빼어나다 새어나다 물러나다 튀어나다...등'이 문장접속에 의한 통어적구성인가는 의심가는 바가 있다. '나다'는 주어의 선택이 제한되는 바가 커서, 이처럼 두 동사가 연결되어 접속문을 형성하는 바가 적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동사들이 문장 접속에 의해서도 같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보기이다.

- (8) 가. 새가 날아(서) 간다.
 나. 샘물이 솟아(서) 났다.
 다. 얼음이 얼어(서) 붙었다.
 라. 부처님도 돌아(서) 앉는다.

이들 동사들 가운데에는 의미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의미와 선행동작후 후행동작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순전히 두 동사의 의미관계 때문이지 통사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다음 동사들은 문장접속의 통어적 구성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합성동사로서 이들은 통어적구성이 굳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합성동사의 생성원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9) 놀아나다 헤어나다 떠들다 잤아들다 접어들다 줄아들다 줄어들다 휘어들다
 들어볼다 나볼다 달라볼다 둘러볼다 둘러볼다 둘러볼다 줄아볼다 내려서다
 누어서다 다가서다 들어서다 외어서다 일어서다 나서다 걸어앉다 누어앉다
 움아오다 괴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떠오르다 휘어오르다

이러한 동사들은 문장접속으로 환원이 되지 않는데, 이 동사들 가운데 '떠들다'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독립적인 쓰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나볼다'에서 '나'가 '나다'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바가 있는 것처럼 그 독립된 동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은 이 동사들이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보기이다.

- (10) 가. ?우리는 여기서 놀아(서) 났다.
 나. ?물이 잤아(서) 들었다.
 다. ?종이들이 모두 들어(서) 붙었다.
 라. ?우리는 엉덩이를 의자에 걸어(서) 앉았다.
 마. ?우리는 모두 누어(서) 앉았다.
 바. ?얼굴이 달아(서) 오른다
 사. ?전염병이 움아(서) 왔다.

자동사의 연결에서 나타난 몇가지 현상을 근거로 이를 모든 합성동사의 경우로 확대하면, 합성동사들의 특징을 후행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접속과 연관되는 것(가), 문장접속과 관계 없는 것(나),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그밖에 보조동사로 다루어질만한 것 등 앞의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다)으로 따로 세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은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과 통하는 경우가 많다.

1. 가다 가. 거쳐가다 건너가다 나아가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넘어가다 다니
 가다 가다 돌아가다 돌아가다 따라가다 뛰어가다 몰아가다 무뢰가다
 무르와가다 물러가다 에워가다 올라가다 잡아가다 지나가다
 질러가다 쫓아가다 찾아가다 타가다
 나. 나가다 데려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때가다 타가다
 다. '가지어가다 가져가다 들어가다 움아가다 휘어가다'는 보조동사
 의미만, 그 외 모든 동사는 보조동사 의미를 증의적으로 가지고 있다.³⁾

(가다 가다들다 가라앉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갈다 갈라지다 갈리다 갈아타다
감기다 감다 개다 ...+가다)

- 2. 걸다 -- ㄱ. 달아걸다 ㄴ. 때걸다
- 3. 고치다 -- ㄱ. 뜯어고치다
- 4. 굽다 -- ㄴ. 예굽다
- 5. 굶다 -- ㄱ. 건너굶다 내려굶다
- 6. 깎다 -- ㄱ. 짜깎다
- 7. 나가다 -- ㄱ. 뛰어나가다
- 8. 나다 -- ㄱ. 깨어나다 달아나다 물러나다 뭉쳐나다 벗어나다 살아나다
 숫어나다 일어나다 뛰어나다 피어나다
 ㄴ. 깨나다 놀아나다 놀어나다 배겨나다 붙어나다 빼나다 새나다
 피어나다 헤어나다 해나다
- 9. 내다 ㄴ. 줄라내다
- 10. 내리다 ㄱ. 끌어서내리다 꺼내리다 끄어내리다 뛰어내리다

‘가다’인 경우, 선행동사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미의 차이가 드러난다.

- (11) ㄱ. (기어, 날아, 걸어) 가다
- ㄴ. (집어, 안아, 물어, 잡어) 가다
- ㄷ. (들어, 나아, 올라, 내려,) 가다
- ㄹ. (돌아, 넘어)가다 -
- ㅁ. 차(아) 가다

(ㄱ)의 선행 동사들은 행위의 끝남이 없는 행위의 지속이다. 따라서 (ㄴ)과 같은 선행행위의 완료후 그 동작을 전제로 하여 후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미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는 선행동사의 의미때문이지 연결어미로 이루어진 접속문에서의 두 동사의 연결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기어(서), 걸어(서), 날아(서) 집에 갔다’와 연결된다. 이러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그 동사의 의미로 인하여, ‘-에’보다는 ‘-에서’와 잘 연결된다. 즉 ‘-에서 기다, 날다, 걷다’는 가능하지만, ‘*-에 기다, 날다, 걷다’는 불가능하다.

(ㄴ)의 선행 동사들은 행위의 끝남이 있는 동사들이다. 그리고 모두 타동사로서

3. ‘가져가다’, ‘가져오다’는 보조동사로서의 ‘가지어가다’와 ‘가지어오다’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지고가다’, ‘가지고오다’에서 ‘-고’가 생략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포현이다. 보조동사의 의미일 경우는 보조동사구성이 되고, 어미 ‘-고’가 생략된 의미일 때는 ‘-아’에 의한 합성동사는 아니기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선행동작의 결과가 유지되는 가운데 후행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결어미에서의 '가짐'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집어(서), 안아(서), 잡아(서), 집으로 갔다.'..등 이들이 가진 공통성은 이들이 하나의 동사처럼 인식되는 바가 있다.

(C)의 동사들은 (ㄱ)과 같이 동작의 끝남이 없지만 (ㄴ)과 같이 선행행위의 결과를 유지하고 후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들 동사들은 (ㄱ)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와 쓰일 수 없지만, '-에'와는 같이 쓰인다. '-에서 오르다, 내리다'는 시발점의 의미로 가능한데 이는 (ㄱ)과는 다르다. '-에 오르다, 내리다'가 가능한 점이 (ㄱ)과 구별된다. 그러나 (ㄴ)과 같이 선행동작이 끝나고 후행동작이 이루어지는 의미는 아니다.

이 동사의 연결은 두 동사 사이에 '서'가 쓰이는 경우 즉 '올라(서)가다'는 두 다른 동작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합성동사 '올라가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합성동사의 용어적구성으로서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 (12) ㄱ. 우리는 산에 올라 간다.
 ㄴ. 우리는 여기에서 올라 간다.
 ㄷ.*우리는 올라(서) 산에 간다.
 ㄹ.*우리는 올라(서) 여기에서 간다.
 ㅁ. 우리는 산에 올라 남쪽으로 간다.

- (13) ㄱ. 우리는 땅에 내려간다.
 ㄴ. 우리는 여기에서 내려간다.
 ㄷ.*우리는 내려(서) 땅에 간다.
 ㄹ.*우리는 내려(서) 여기에서 간다.
 ㅁ..우리는 여기에 내려 남쪽으로 간다.

여기서 '가다'는 보조동사의 의미가 커서 보조동사로 볼만 한 점이 있으나, '되다'의 의미와 더불어 '가다'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어 순수히 보조동사로 보기 어렵다. '나다'의 경우 이 동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어서 '깨어(서) 나다, 달아(서) 나다...'등은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 합성동사들은 비교적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조동사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은 보조동사로 보기는 어렵다.⁴⁾ ㄱ.에 소속된 동사들도 중심의미를 벗어나 주변의 의미, 즉 유추나 비유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본래 두 동사의 연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4. 김기혁(1988)에서 이들 '나다, 들다, 먹다' 등의 동사가 보조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동사로 보기는 어려운 바를 제시한 바 있다.

11. 넘다
 ㄱ. 뛰어넘다
12. 넣다
 ㄱ. 끌어넣다 물어넣다 앓아넣다 틀어넣다
13. 놓다
 ㄱ. 끼놓다 내려놓다 내리어서놓다 널어놓다 늘어놓다 둘러놓다 둘러놓다 물어놓다 빼놓다 얹어놓다 비어놓다 터놓다 퍼놓다
 우비어놓다 제쳐놓다 풀어놓다
 ㄴ. 날아놓다 다가놓다
 ㄷ. 모두 보조동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다 가다듬다 가라앉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갈다 갈라지다 갈리다 갈아타다
 감기다 감다 개다...+놓다)
14. 눅다
 ㄱ. 돌아눅다
15. 다니다
 ㄱ. 나다니다 날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떠다니다 떠돌아다니다
16. 달다
 ㄱ. 매달다
17. 당기다
 ㄱ. 감아당기다 굶어당기다 꺼당기다 끄어당기다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찍어당기다
18. 대다
 ㄷ. 건너대다 구슬려대다 나대다 닦아대다 먹어대다 물어대다
 볶아대다 졸라대다 해대다 휘어대다
 (가다 가다듬다 가라앉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갈다 갈라지다 갈리다 갈아타다
 감기다 감다 개다...+대다)
19. 들다
 ㄴ. 나들다 떠들다 싸들다 예들다
20. 다니다
 ㄱ. 나돌아다니다

보조동사인 '대다, 놓다'의 경우 이들은 합성동사라기보다는 보조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동사들이 보조동사구성을 이루어서 하나의 합성동사와 같은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외의 대부분의 선행동사와 함께 연결되어 보조동사구성을 이루고 이는 합성동사와 같은 용어 의미적인 기능을 한다. 이

러한 보조동사구성의 보기를 ()에 일부 들었다. 이들 보조동사들도 무제한적으로 선행동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사들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선택제한이 있으나 생산적임은 분명하다.

21. 두다

- ㄱ. 놓아두다 던져두다 덮어두다
- ㄷ. 놓아두다 던져두다 덮어두다 두어두다 뒤두다 징거두다
(가다 가다들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갈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 두다)

22. 두르다

- ㄱ. 꺼두르다 에두르다

23. 들다

- ㄱ. 새겨들다 새기어들다
- ㄴ. 눌러들다 알아들다 얻어들다 여겨들다 주워들다

24. 들다

- ㄱ. 돌아들다 뛰어들다
- ㄴ. 갈아들다 꺼들다 꺼들다 끄어들다 나들다 덤비어들다 돌아들다
드나들다 떠들다 뛰어들다 모아들다 잡아들다 찾아들다 접어들
다 줄아들다 꺾들다 죄어들다 줄어들다 휘어들다

25. 디디다

- ㄱ. 제겨디디다

26. 때리다

- ㄴ. 흠쳐때리다 흠쳐때리다

28. 때다

- ㄴ. 물어때다 잡아때다

29. 뚜드리다

- ㄱ. 깨뚜드리다 깨뚜드리다

30. 뛰다

- ㄱ. 건너뛰다 걸러뛰다

‘두다’ 동사는 ()로 표시한 바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선행동사가 다양하고 선택 제약이 적다. 따라서 이 동사는 보조동사로 불만하다. ‘들다’의 경우도 합성동사의 수가 다른 동사들에 비해 비교적 많지만 그 동사가 결합되는 선행동사와의 수가 전체 동사의 수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이어서 보조동사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선행동사들간에는 이들 동사들이 갖는 동사들끼리의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31. 뜯다
 ㄱ. 물어뜯다 쪼뜯다 쥐어뜯다
32. 막다
 ㄱ. 둘러막다 둘러막다 틀어막다
33. 말다
 ㄱ. 얹어말다
34. 맞다
 ㄴ. 얻어맞다
35. 말다
 ㄱ. 꿰어말다 안아말다
36. 매다
 ㄱ. 끌어매다 달아매다 둘러매다 둘러매다 둘러매다 움아매다 잘라매다 잡아매다
 ㄴ. 찍어매다
37. 먹다
 ㄱ. 감아먹다 굶어먹다 까먹다 따먹다 떨어먹다 때먹다 때어먹다 뜯어먹다 발라먹다 벌어먹다 베먹다 베어먹다 빨아먹다 빼먹다 얻어먹다 우려먹다 잘라먹다 잡아먹다 지어먹다 질러먹다 집어먹다 조아먹다 파먹다 팔아먹다 피먹다 할아먹다
 ㄴ. 갈겨먹다 놀아먹다 농아먹다 부러먹다 불어먹다 알아먹다 팔아먹다 쳐먹다 해먹다
38. 무느다
 ㄱ. 까무느다 .
39. 묻다 1
 ㄱ. 캐묻다
40. 묻다 2
 ㄱ. 파묻다
41. 물다
 ㄴ. 깨물다 베물다 때물다
42. 밀다
 ㄴ. 떠밀다 때밀다
43. 바치다
 ㄷ. 일러바치다 ?(가다 가다들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같다 같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바치다)
44. 박다
 ㄱ. 구워박다 틀어박다
 ㄴ. 쪼박다 쥐어박다 쥐어박다

45. 받다

- ㄱ. 떠받다 물아받다

46. 버리다

- ㄱ. 떼버리다 배어버리다 쓰러버리다 쳐버리다 치워버리다
- ㄷ. 둘러버리다 떼버리다 배어버리다 쓰러버리다 야자버리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쳐버리다 치워버리다 (가다 가다듬다 가르치다 가르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같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버리다)

47. 보다

- ㄱ. 노려보다 달아보다 돌아보다 둘러보다 둘러보다 떠보다 뜯어보다 살펴보다 알아보다 우러러보다 찾아보다 훑어보다 훑겨보다
- ㄴ. 굽어보다 노려보다 떠보다 몰라보다 바라보다 쳐보다 알아보다 여겨보다 찾아보다 훑아보다
- ㄷ. 굽어보다 노려보다 달아보다 둘러보다 돌아보다 둘러 보다 둘러보다 떠보다 뜯어보다 몰라보다 바라보다 살펴보다 쳐보다 알아보다 여겨보다 우러러보다 찾아보다 쳐보다 훑아보다 해보다 훑어보다 훑겨보다 (가다 가다듬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같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보다)

48. 부수다

- ㄱ. 깨부수다 쳐부수다

49. 부치다

- ㄴ. 벗어부치다

50. 붓다

- ㄱ. 지어붓다 퍼붓다

합성동사는 다른 문장성분에 따라 통어적구성의 가능성이 달리 해석된다. '깨물다'의 경우 '사탕을 깨물다'는 '사탕을 깨어서 물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물깨물다', '혀를 깨물다'는 이러한 두 동작의 연속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의 동작으로 굳어져서, ㄴ의 의미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동사의 의미가 가능한 것은 우선 ㄱ.으로 처리하였다. '배물다'는 혀를 잇 사이에 두고 꼭 누르다의 의미를 '배물다'는 이로서 물어서 떼다의 의미가 있다. 이는 모두 통어적구성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나, 통어적구성과는 의미가 많이 달라져 그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떠맡다'도 '뜨다'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이점은 '까무늬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늬다'의 의미는 '쌓인 물건을 흩어지게 하다'인데 '까무늬다'는 '높은 데를 깎아내리다'의 의미를 가진다. '구워박다'는 사전에서 1. '사람이 한

군데서 아무 변통을 못하고 지내다'와 2. '꽤기 같은 것을 단단히 끼어 있게 하기 위하여 불감을 죄어박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2의 의미에서 1의 의미가 확장되어 형성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경우 1을 형성하는 두 동사의 의미의 결합만으로는 2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2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굳은합성어와 녹은합성어와 같은 구별이 가능할 것이다. '죄어박다'는 '약간 높은 곳에서 함부로 넘어뜨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동사의 의미에서는 연상할 수 없다. 또한 '취다'와 '박다'는 주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통어적구성으로는 불가능한 표현이 합성어에서는 가능한데, 이는 합성동사의 형성법에 의한 논리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바치다'는 '주다'의 높임의 상대어인데 보조동사적인 쓰임에서는 '주다'처럼 생산적이지 못해서 이러한 쓰임이 한정된다. 따라서 '바치다'는 '주다'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따로 합성동사로 다룰 수 밖에 없다. '지어붓다'는 사전에서 '쇠를 끊이어 붓다'의 의미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래동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1. 붙다

- ㄱ. 둘러붙다 둘러붙다 얼어붙다 줄아붙다
- ㄴ. 나붙다 늘어붙다 달라붙다 둘러붙다

52. 빠지다

- ㄷ. 말라빠지다 써어빠지다 ?(가다 가다들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갈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빠지다)

53. 살피다

- ㄴ. 굽어살피다

54. 삶다

- ㄴ. 엮어삶다 구슬려삶다.

55. 새기다

- ㄱ. 뚫어새기다

56. 서다

- ㄱ. 갈라서다 나서다 내려서다 넘어서다 늘어서다 다가서다 돌아서다 둘러서다 들어서다 물리서다 올라서다 일어서다
- ㄴ. 외어서다

57. 섬기다

- ㄴ. 주워섬기다

58. 세다

- 집어세다 할아세다

59. 싸다

- ㄱ. 둘러싸다 에워싸다

60. 쌓다

ㄱ. 둘러쌓다

‘나붙다’는 ‘거리거리에 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다’의 의미는 찾기 어렵고, ‘늘어붙다’도 ‘늘어서 붙다’의 의미는 불가능하다. 이점은 ‘늘다’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늘어서다, 늘어났다’와는 비교된다. ‘굽어살피다’는 ‘굽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통어적구성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굽어보다’도 이와 같다. 통어적구성이라면 ‘굽혀살피다’가 정상적인 것이다. ‘외어서다’도 ‘외다’가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짜임을 가진다. ‘엎어살다’의 의미는 ‘엎구수한 말로 속여 넘기다’, ‘놀음판에서 그 판에 이기어 차지할 돈을 전부 그대로 태어놓고 다음 승부를 다루기로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동사의 의미로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는 ‘엎어누르다, 엎어놓다, 엎어누르다, 엎어말다’ 등의 동사에서는 본래 동사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엎어누르다, 엎어놓다, 엎어누르다’는 통어적구성에서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합성동사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빠지다’도 보조동사로 다룰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선행동사와의 선택에서 심한 제약을 보이므로 합성동사로 다루어진다.

‘주워섬기다’는 그러한 통어적 의미가 없다. ‘할아세다’는 ‘교묘한 수단을 써서 남의 물건을 단번에 빼앗아 가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할아먹다’가 1. ‘헛바닥으로 쓸어들어 먹다’와 2. 움지 못한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요리조리 빼앗다’의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과 구별된다. 따라서 ‘할아세다’는 본래의 두동사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거나, 두 동사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방법으로 합성동사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하게 된다.

61. 쓰다

ㄱ. 덮어쓰다

62. 안다

ㄱ. 껴안다 꺾어안다

63. 앉다

ㄱ. 걸어앉다 꿰어앉다 내려앉다 다가앉다 둘러앉다 돌아앉다 둘러앉다 들어앉다 물러앉다 늘어앉다

64. 앓다

ㄱ. 빼앗다

65. 엮다

ㄱ. 둘러엮다

66. 오다

- ㄱ. 거쳐오다 건너오다 끼오다 끼어오다 나오다 날아오다 내려오다
넘어오다 다가오다 다녀오다 돌아오다 들어오다 따라오다 뛰어
오다 뛰어들어오다 몰아오다 물러오다 올라오다 움아오다 질러
오다 찾아오다
- ㄷ. 가져오다 가지어오다 (가다듬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
키다 가지다 갈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오다)

67. 오르다

- ㄱ. 괴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떠오르다 뛰어오르다 쫓아오르다
- ㄴ. 달아오르다

68. 이르다

- ㄴ. 타이르다

69. 입다.

- ㄱ. 갈아입다 끼입다

70. 잇다

- ㄱ. 제겨잇다

71. 자다

- ㄴ. 놀러자다

72. 잡다

- ㄱ. 굴라잡다 싸잡다 움켜잡다 움켜잡다 흠켜잡다 흠켜잡다 휘어
잡다

73. 주다

- ㄱ. 그어주다 꿈어주다 닭아주다 둘러주다 몰아주다 물어주다 접어
주다 흠켜주다 흘리어주다
- ㄷ. 놓아주다 도와주다 두어주다 동겨주다 바래주다 바래다주다
보아주다 알아주다 일러주다 뽕겨주다 흠켜주다 (가다 가다듬
다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다 가리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지
다 갈다 갈아타다 감다 거닐다 거두다 거들다....+ 주다)

74. 쥐다

- ㄱ. 굶어쥐다 움켜쥐다 움켜쥐다

75. 지르다

- ㄱ. 건너지르다 건너지르다 꺾지르다 휘어지르다

76. 지피다

- ㄴ. 건너지피다

77. 짚다

- ㄱ. 건너짚다

78. 쪼다

ㄱ. 나쪼다

79. 차다 1

ㄱ. 들어차다

80. 차다 2

ㄱ. 걷어차다 제겨차다

81. 채다

ㄱ. 낚아채다

ㄴ. 알아채다

82. 치다

ㄱ. 내려치다 들라치다 둘러치다 떨어치다 때치다 때치다 때어치다
 몰아치다 꺾치다 꺾어치다 후려치다

ㄴ. 둘러방치다 뷰어치다 얼러방치다

83. 타다

ㄱ. 갈아타다

84. 파다

ㄱ. 오비어파다 우비어파다

85. 팔다

ㄱ. 조아팔다

86. 흔들다

ㄱ. 쥐어흔들다

‘-오다’는 ‘-가다’와 비슷한 유형의 합성동사를 이룬다. ‘거너지피다’는 강물이 이
 쪽에서 저쪽까지 얼어붙다의 의미로 통어적구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나쪼다’는 높은
 분께 나아오거나 나아가다의 의미로, ‘차다’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퐁겨주다’는
 ‘남이 모르는 것이나 비밀을 가만히 알려주는 것’으로 통어적 구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3. 통어적구성에서의 동사와 동사의 연결

문장접속으로 구성될 수 있는 동사의 연결들에 비하면 여기에 제시된 합성동사들
 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성동사에 대한 사전들의 인식이 올바른 것인가
 에 의심가는 바가 있고, 합성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의 의문
 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사와 동사들의 연결이 가능
 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가능한 연결들의 집합을 모아보고 불가능한
 표현과의 대비관계를 검토하여 그 원인을 밝힐 것이며, 다음으로 가능한 표현들과

사전에 수록된 합성동사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전에서의 합성동사의 인식이 타당하였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동사 가운데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이 동사들의 상호 연결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사들을 선택하는 원칙으로는 편의상 후행동사는 합성동사의 형성이 활발했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다.

합성동사의 연결은 합성동사의 생산성과 연결지어 생각할 문제인데, 합성동사의 생산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하나는 합성동사로 사전이나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동사들이 다른 동사에 비해 생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동사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합성동사가 생산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구성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 제시한 사전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한 합성동사의 후행동사에 따라 빈도수로 보면, '-가다(31)', '-나다(19)', '-놓다(17)', '-들다(22)', '-먹다(35)', '-버리(9)', '-보다(22)', '-서다(13)', '-오다(23)', '-주다(20)', '-치다(14)...등이다. 그 고 이들 합성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후행동사를 보면 약 86개에 불과하다. 이는 국어 동사의 전체수를 고려한다면 사전적인 인식에서 합성동사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동사는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현상으로는, 여기서 제시된 합성동사의 후행동사는 대부분이 보조동사로도 기능을 하는 것이다. 어미 '-아'와 관련된 보조동사로는 '가다, 보다, 버리다, 주다, 놓다, 두다, 내다, 대다, 쌓다,'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나다, 들다, 먹다, 서다, 치다'를 제외한 동사들은 보조동사와 형태가 같다. 또한 이 자료에는 보조동사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합성동사로 처리된 보기들이 있다. '뛰어가다' '먹어대다' '잊어버리다' '알아보다' '보아 주다' 등을 비롯한 여러 동사들은 보조동사구성이다.

여기서 연결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으로 정한 선행 동사들은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을 우선 500개로 한정하여 이를 가나다순으로 모은 것이다. 여기서는 이 중 100개만 살펴본다.⁵⁾ 이 선택에서 '-하다'로 이루어진 동사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합성적으로 이루어진 동사도 제외하려고 하였다.

선행동사가 '-가다'의 경우를 모형적인 자료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의 '가다'의 쓰임은 보조동사가 아닌 경우이다.

- (1) 그는 학교로 ?가(*가고) 갔다.
- (2) 그는 여기에서 화초를 가꾸어(가꾸고) 갔다
- (3) 잠수함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가라앉고) 갔다
- (4) 그는 여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어(가르치고) 갔다

5. 이 빈도수의 선정은 한국어 사전 편찬실의 연세말뭉치 1의 어휘빈도표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빈도수에 따른 동사의 취사 선정에는 필자의 임의적인 판단도 많이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 (5) 그는 물건을 보자기로 ?가리어(가리고) 갔다
- (6) 그가 먼 산을 *가리키어(가리키고) 갔다.
- (7) 그가 표를 *가져와(가져오고) 갔다.
- (8) 그는 물건을 *가지어(가지고) 갔다.
- (9) 그는 아기를 감싸(감싸고) 갔다.
- (10) 그는 물건을 감추어(감추고) 갔다.
- (11) 그는 훈련이 강화되어 갔다 (다른주어)
- (12) 그는 여러 장비를 갖추어(갖추고) 갔다.
- (13) 그는 이불을 ?개어(개고) 갔다.
- (14) 우리는 농촌이 개발되어(개발되고) 갔다 (다른주어)
- (15) 우리는 농촌이 개선되어(개선되고) 갔다 (다른주어)
- (16) 우리는 올림픽이 개최되어 갔다 (다른주어)
- (17) 그는 모든 물건을 거두어(거두고) 갔다.
- (18) 그는 대전을 거치어(?거치고) 갔다
- (19) 그는 대전에 걸어(여기서 한시간동안 걷고)갔다.
- (20) 그는 목에 목걸이를 *걸어(걸고) 갔다.
- (21) 그는 목에 가시가 걸리어(*걸리고) 갔다.
- (22) 그는 어깨에 수건을 *걸치어(걸치고) 갔다.
- (23) 그는 여기에서 고생을 *겪어(겪고) 갔다.
- (24) 그는 어려움을 ?견디어(견디고) 갔다.
- (25) 그는 일이 결정되어(결정되고) 갔다.
- (26) 우리는 그 집에 인사를 겸하여(*겸하고) 갔다.
- (27) 그는 일이 겹치어 갔다.(다른주어)
- (28) 그는 일이 계속되어(*계속되고) 갔다.(다른주어)
- (29) 그는 물건을 골라(고르고) 갔다.
- (30) 그는 물건을 고치어(고치고) 갔다.
- (31)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관련되고)갔다.
- (32)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어(구성되고) 갔다. (다른주어)
- (33) 그는 구속되어(*구속되고) 갔다.
- (34) 그는 마음을 굳히어(굳히고) 갔다.
- (35) 그는 그림을 그리어(그리고) 갔다.
- (36) 그는 일을 *그만두어(그만두고) 갔다.
- (37) 그는 일을 *그치어(그치고) 갔다.
- (38) 그는 낙엽들을 긋어(긋고)갔다.
- (39) 그는 출입이 금지되어(*금지되고) 갔다. (다른주어)
- (40) 그는 *기다리어(?기다리고) 갔다.
- (41) 그는 성공이 기대되어(*기대되고) 갔다. (다른주어)

- (42) 그는 토끼를 여기에서 길러(기르고) 갔다.
- (43) 그는 물건을 ?기울이어(기울이고) 갔다.
- (43) 그는 방석을 *깔아(깔고) 갔다.
- (44) 그는 창문을 *깨어(깨고) 갔다.
- (45) 그는 잘못을 *깨달어(깨닫고) 갔다.
- (46) 그는 창문을 *깨뜨리어(깨뜨리고) 갔다.
- (46) 그는 창문이 깨지어(?깨지고) 갔다 (다른주어)
- (47) 그는 나무를 꺾어(꺾고) 갔다.
- (48) 그는 손을 *꼽아(*꼽고) 갔다.
- (49) 그는 머리에 꽃을 *꽂아(꽂고) 갔다.
- (50) 그는 돈을 꾸어(*꾸고) 갔다.
- (51) 그는 방을 *꾸미어(꾸미고) 갔다.
- (52) 그는 행복을 *꿈꾸어(꿈꾸고) 갔다.
- (53) 그는 실을 끊어(끊고) 갔다.
- (54) 그는 연락 끊이어(*끊이고) 갔다. (다른주어)
- (55) 그는 손님을 끌어 (끌고)갔다.
- (56) 그는 물을 끊이어(끊이고) 갔다.
- (57) 그는 연극이 끝나(끝나고) 갔다. (다른주어)
- (58) 그는 팔을 ?끼어(끼고) 갔다.
- (59) 그는 팔을 끼우어(끼우고) 갔다.
- (60) 그는 많은 영향을 끼치어(끼치고) 갔다.
- (61) 우리는 밖에 ?나가(*나가고) 갔다.
- (62) 우리는 물건을 *나누어(나누고) 갔다.
- (63) 우리는 의견이 둘로 나뉘어(*나뉘고) 갔다. (다른주어)
- (64) 우리는 나쁜 소문이 나돌아(나돌고) 갔다. (다른주어)
- (65) 우리는 밖에 ?나서(*나서고) 갔다.
- (66) 우리가 나타나(?나타나고) 갔다. (다른주어)
- (67) 비행기가 *날아(*날고) 갔다.
- (68) 우리는 비행기를 *날리어(날리고) 갔다.
- (69) 우리는 ?날아가(*날아가고) 갔다.
- (70) 우리는 여기에 *남아 (*남고) 갔다.
- (71) 우리는 식량을 *남기어(남기고) 갔다. (다른주어)
- (72) 우리는 목표를 낮추어(낮추고) 갔다.
- (73) 그녀는 아이를 ?남아(남고) 갔다.
- (74) 우리는 돈을 *내어(내고) 갔다.
- (75) 그는 돈을 *내놓아(내놓고) 갔다.
- (76) 그는 밖을 *내다보아(내다보고) 갔다.

- (77) 그는 산에서 내려가(내려가고) 갔다.
 (78) 그는 산에서 내려와(내려오고) 갔다.
 (79) 그는 말에서 내리어(내리고) 갔다.
 (80) 그는 손을 *내밀어(내밀고) 갔다.
 (81) 그는 명분을 *내세우어(내세우고) 갔다.
 (82) 그는 빨래를 *넣어(넣고) 갔다.
 (83) 우리는 길을 *넓히어(넓히고) 갔다.
 (84) 우리는 산을 넘어(?넘고) 갔다.
 (85) 우리는 위기를 ?넘기어(넘기고) 갔다. (같은주어)
 (86) 우리는 물이 넘치어 갔다. (다른주어)
 (87) 우리는 물건을 넣어(넣고)갔다.
 (88) 그는 여기서 *놀아(놀고) 갔다.
 (89) 그는 *놀라(?놀라고) 갔다.
 (90) 그는 혈압이 높아지어(*높아지고) 갔다. (다른주어)
 (91) 그는 온도를 *높이어(높이고) 갔다. (다른주어)
 (92) 그는 물건을 *놓아(놓고) 갔다.
 (93) 그는 물건이 *놓이어(놓이고) 갔다. (다른주어)
 (94) 그는 차를 *놓치어(놓치고) 갔다.
 (95) 그는 머리를 *누르어(누르고) 갔다.
 (96) 그는 자리에 누워(*눕고) 갔다.
 (97) 그는 행복을 ?느끼어(느끼고) 갔다.
 (98) 우리는 사람이 놀어(*놀고) 갔다. (다른주어)
 (99) 우리는 손님을 놀리어(놀리고) 갔다.(다른주어)
 (100) 우리는 손님이 놀어나(*놀어나고) 갔다. (다른주어)

어미 '-아'에 의해 연결되는 동사의 연결은 문맥을 주면 대부분 인과적의미가 나타난다. 위 보기에서 (다른주어)라고 표시한 것은 계기적 의미로서의 동사 연결은 불가능하지만, 주어가 달리 나타나면서 인과적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연결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들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동사가 연결되어 한 동사처럼 구실하는 의미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주어와 주어의 관계는 두 주어가 모두 행동주(Agent)인 경우도 있고('가다'의 주어는 행동주이다), 선행동사의 주어가 대상(Patient)인 경우도 있어서, 의미관계가 동사 연결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사의 연결을 관찰하면 여러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미 '-아'와 '-고'가 상보적인 경우가 많은 사실은 여러가지 설명을 하여준다. 이들 동사의 연결은 어미 '-아, -고'의 연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4가지로 나누어진다. ㄱ. 어미 '-아'와 어미 '-고'가 모두 가능한 동사의 연결 ㄴ. 어미 '-

아'와 어미'-고'가 모두 불가능한 동사의 연결 D. 어미'-아'는 가능하지만, 어미'-고'는 불가능한 동사의 연결 2. 어미'-고'는 가능하지만, 어미'-아'는 불가능한 동사의 연결.

위의 문장에서 제시된 이러한 동사의 연결의 보기를 동사만의 연결로 들어본다. 다음은 두 동사의 연결이 모두 가능한 (7)의 경우이다.

- (14) 7. 가꾸어/고, 가르쳐/가르치고, 가져/가지고 감싸/감싸고, 감추어/감추고, 갖추어/갖추고, 거두어/거두고, 걸어/걸고, 골라/고르고, 그려/그리고, 길러/기르고, 꺾어/꺾고, 끌어/끌고, 끊어/끊고, 넣어/넣고, ?넣어/넣고, ?느끼어/느끼고

어미'-아'가 가능한 것은 선행동사의 의미가 '가짐', '행위결과와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후행행위를 하는 의미관계일 때이다. 이에 비해 어미'-고'의 의미는 선행동작의 완료후 다른 동작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만이 어미'-아'나 어미'-고'와 연결되어 동사연결을 이룬다.

그러나 이것도 동사에 따라 의미 차이를 갖는다. 다음 문장에서 '찍어'는 '찍어 가지고'의 의미를 갖지만, '찍고'는 '찍고나서'의 의미로 들은 다른 의미이다. 이에 비해 '가져'는 '가져 가지고'의 의미가 있지만, '가지고'는 '가지다'의 의미가 '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가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5) 그가 나무를 찍어 갔다.
그가 나무를 찍고 갔다. (끊어/끊고, 그려/그리고)

- (16) 그가 물건을 가져 갔다.
그가 물건을 가지고 갔다. (감추어/감추고, 넣어/넣고)

이점은 '넣어/넣고' 등에서도 같다. '걸어/걸고'의 경우는 '걷다'는 '가다'의 방법을 나타내서 가짐과 다른 의미 관계이다. 이 점은 '아'가 불가능한 (2)에서 좀 더 분명히 나타난다.

다음은 두 동사의 연결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L)이다.

- (17) L. *나가/*나가고, *나서/*나서고, *남아/*남고,

두 어미에 의한 동사의 연결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동사의 의미에 기인한 것으로 '나가다, 나서다'는 이미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다'는 후행하는 '가다'의 의미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미'-아'의 연결은 불가능하지만, 어미'-고'의 연결은 가능한 경우인 (2)

로 많은 동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어미 '-아'에 의한 동사의 연결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여주는 근거자료가 된다.

- (18) ㉠. *걸어/걸고, *걸치어/걸치고, ?꺾어/꺾고, ?견디어/견디고, *기다리어/기다리고, ?기울여/기울이고, *칼아/칼고, *깨어/깨고, *깨뜨리어/깨뜨리고, *꾸미어/꾸미고, ?끼어/끼고, ?끼워/끼우고, *나누어/나누고, *날리어/날리고, *남기어/남기고, *두어/두고, *내놓아/내놓고, *내다보아/내다보고, *내밀어/내밀고, *널어/널고, *넙히어/넙히고, *넘기어/넘기고, *놀아/놀고, *놓아/놓고, *누르어/누르고, *놓치어/놓치고

어미 '-고'에 의한 동사의 연결에서 선행동사가 착용과 같은 '가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앞의 (L)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착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미 '-고'에 의한 문장에서도 동사의 연결이 가능하다. 이는 '-고 있다'의 구문에서 착용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동사연결구성의 의미가 중의적이었던 점과 연관된다.

- (19) 가. 그가 옷을 입고 있다.
 나. 그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
 다. 그가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있다.

이 경우는 '걸다, 걸치다, 칼다...' 등의 동사가 모두 가짐을 나타내고 후행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미 '-아'에 의한 동사의 연결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어미 '-고'는 불가능하고 어미 '-아'는 가능한 경우인 (㉠)이다.

- (20) 가/가고, 가라앉아/가라앉고, 거쳐/거치고, 걸어/걸고, 내려와/내려오고, 내려가/내려가고, 누워/눕고

지금까지 빈도수를 중심한 선행동사들이 후행동사 '가다'와 연결되는 모습을 모형적으로 알아 보았다. 여기서 동사들의 연결의 제약과 가능에 따른 해석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 두가지 원리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 공통되는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마무리

문장접속에 의한 통어적 구성에서 합성동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어적구성 가운데 동사연결이 가능한 연결의 한계를 정하는 것과 동사 연결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

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철저한 자료화를 이루기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발음치(Corpus)의 구축이나, 기존의 발음치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이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동사들의 연결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면에서만도 많은 부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동사연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사전에서의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합성동사 인식의 전체적인 범위를 한정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사연결의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하는 문법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합성동사가 이루어지는 동사연결의 여러가지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합성동사의 형성의 과정을 추적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이미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본다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고, 합성동사의 인식의 문제도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전을 그 출발로 하였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동사연결의 다단계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형 중심적인 연구가 국어 전반적인 현상의 설명에 일부를 형성한다는 당연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위에서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 시원한 문법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동사연결은 문장절속의 통어적구성에서 합성동사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통어적구성 그 자체에서도 다단계적인 동사연결의 긴밀성을 가지고 있고, 합성동사도 동사연결의 긴밀성의 차이가 있다는 동사연결의 다단계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동사연결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철저한 국어자료의 정리와 이에 대한 설명을 찾는 방법으로 지속될 것임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강선영. 1993. 'Serial Verb Construction in Korean and their Implication,' 「생성 문법연구」 3권 1호.
- 고영근. 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 고재설. 1988. 「국어의 합성동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 김계곤. 1970. 현대 국어의 풀이씨 합성법. 「인천고대 논문집」 4.
- 김규선. 1970.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연구. 「어문학」 23.
- 김기혁. 1988. 국어 문법에서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언어연구」 8, 경희언어연구소.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영희. 1986. 복합명사구, 복합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 김주미. 1988. 「국어 복합동사의 의미론적 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 김창섭. 1990. 복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국어연구회,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 1992.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과 과제, 「국어국문학 40년」, 서울: 집문당.
- 남기심, 고영근. 1985, 1989.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68. 「변형생성 문법의 이론과 국어 V류어의 하위 분류연구」. 연세대 대학원.
- 서정수. 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송철희. 1992. 「생성형태론」. 국어학 연구 백년사, 서울: 일조각.
- 유구상. 1992. 「구조형태론」. 국어학 연구 백년사, 서울: 일조각.
- 이석주. 1989. 「국어 형태론」. 서울: 한샘.
- 이숙희.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위싱턴대 박사논문.
- 임흥빈. 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 정동환. 1993. 「국어 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사.
- 최현배. 1982. 「우리말론」, 아홉째 고침펴냄, 정음사.
- 허 용. 1975. 「국어학」, 샘문화사.
- Bauer L. 1983. *English Word Formation*. Cambridge CUP.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전상범 역(1987), 한신문화사.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